

스웨덴 大學教育制度와 스톡홀름大學校

文 石 南

(全南大 社會學科)

1. 머리말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등부에 위치한 나라다. 동서의 폭 약 400 km, 남북의 길이 약 2,600 km로 길게 뻗어 있다. 국토 면적의 크기는 유럽에서 4위에 해당되나 인구는 겨우 860만 정도이다. 중북부는 산악 지대로 되어 있으며, 중남부에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다. 천연 자원으로는 풍부한 철광석과 울창한 수목을 지니고 있는데, 이 두 자원이 1844년경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었다.

스웨덴의 인구 분포는 전국적으로 크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 인구의 90% 가량이 중남부 지방에 살고 있으며, 북부 지방은 몇 개의 광업 도시와 항구를 제외하고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체 인구의 85% 가량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이 나라는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상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정치 무대는 단원의 의회(Riksdag)이다. 5개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10대 부국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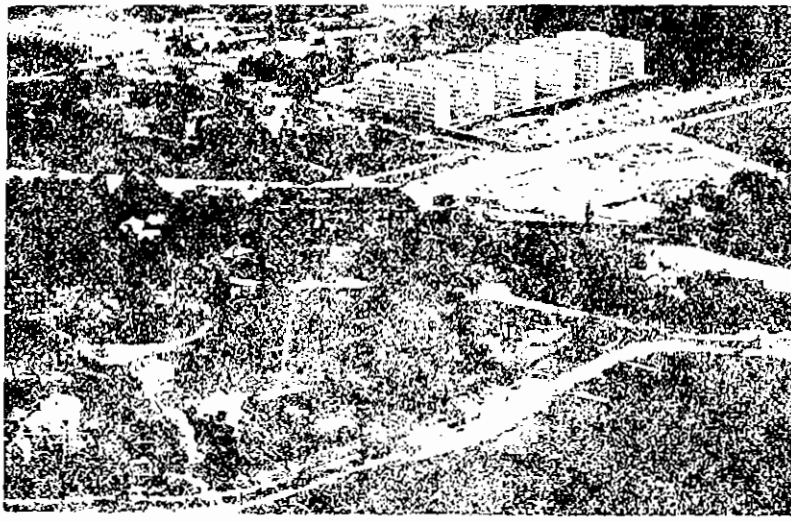
이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해상 약탈로써

유럽의 해로를 장악하고 멀리 현재의 이스탄불에까지 원정을 갔던 바이킹시대(Viking age, 800~1050)가 있었는데, 남부 지역을 덴마크에 점령 당한 적도 있었다. 스웨덴이 근대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것은 1523년 구스타브 바사(Gustav Vasa) 왕의 즉위 때부터이다. 1525년 루터교(Lutheranism)를 국교로 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11년 이후 1세기 이상 발틱해 연안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여 강대국으로 군림하였던 시대(1611~1718)가 있었는데, 1867년부터 1889년 사이에 약 1백만 명의 시민이 기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북미 대륙으로 이민을 떠난 민족적 슬픔도 체험했었다. 그러나 1815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가담함이 없이 비동맹 중립국의 지위를 확보하여 평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이다.

오늘날 스웨덴을 가리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깝게 보장된 복지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이 나라가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형평과 배분’의 국민 정신이 함양되었고, 오랫동안 상부상조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사회적 연대 의식이 널리 개발된 점이 복지 정책 수립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



◀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특정 대학교를 선호하지 않고, 저명한 교수가 있는 학과를 중요시 한다. 따라서 입학생의 수도 학과 전공이나 교수의 명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사진은 스톡홀름대학교 전경.

었다.

‘기아트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1백 만 명의 동족이 북미 대륙으로 이민간 역사적 사실과 결부해서 기본적 복지의 필요성을 민족적으로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서 전화를 입은 적이 없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제 1·2차 세계 대전에 시달리고 전후 복구에 부심하고 있을 때에 스웨덴은 국가 재원을 복지 시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기반 세력인 노동자들이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말을 전후하여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정부에 복지 정책의 입법화를 촉진시켰다는 점 등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요소들이다.

스웨덴에 있어서 교육은 복지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각종 교육제도 역시 복지적인 측면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문호 개방과 아울러 각종 학업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나라는 1447년에 대학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의학 4명, 화학 4명, 물리 3명, 문학 5명, 경제학 1명, 평화 5명). 1842년에 의무교육을 실

시하기 시작하였고, 1959년부터는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와 학용품은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도 무료로 제공한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에게는 매학기마다 무료 승차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9년제 구문드스콜라(Grundskola)를 마친 학생은 3년제 질나시움(Gymnasium)에 진학하게 되고 이어서 대학교(Universitet)에 입학하게 된다.

2. 大學教育制度

스웨덴의 대학교육은 15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제 1차 세계 대전 종말까지의 발전 과정에서는 독일의 학제를 거의 답습했었다. 1950년대에 각종 교육개혁이 대대적으로 단행되었고, 대륙형의 엘리트주의 교육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교육제도로 개편되었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와 복지의 선양, 문화 발전과 사회 변동의 선도, 그리고 고급 인력의 수급이다.

대륙형 엘리트 중심의 대학 교육제도하에서는 사회 하층 계급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교육제도가 경직되어 있어 사회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

도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가 구조·기능적으로 급변하고 다양한 고급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고등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대학교육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모든 대학(교)은 왕립(국립)이며 등록금이 없다. 매학기마다 자치 환동비로 소액(30달러 정도)을 납부하는 것이 그 전부이다. 재학 중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학업에 필요한 대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두상으로 지급하는 학업 보조금도 받는다. 또 모든 대학생에게 의료 보험의 혜택이 베풀어지고 있다.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생은 매 3개월마다 자녀 양육 보조금을 받으며, 부부의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도 매월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생 아파트에 입주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은 1447년에 설립된 욥살라(Uppsala)대학교이다. 교황 식스투스 4세(Pope Sixtus IV)의 교서에 의해서 볼로냐(Bologna) 모델을 도입해서 설립된 교양학부(Studium generale)가 욥살라대학으로 발전했다. 이후 욥살라대학교는 2백년 이상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분류학자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 1707~78)를 배출했다.

1668년에는 당시 독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었던 스웨덴의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 룬드(Lund)에 대학이 설립되었고, 2백년 후인 1878년에는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 대학이 설립되었다. 현재 스웨덴에는 욥살라대학교, 룬드대학교, 스톡홀름대학교, 요테보리(Göteborg)대학교, 우메오(Umeå)대학교, 린쇼핑(Linsöping)대학교 등 6개의 종합대가 있다. 또 지역별로 루레오(Luleå), 외스텔순드(Östersund), 슌드발(Sundsvall), 외레브로(Örebro), 칼스타드

(Karlstad), 백쇄(Växjö)에 6개의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와 분교의 명칭은 위치하고 있는 도시명이며, 앞에 열거한 종합대와 분교 이외에도 각종 특수 대학과 대학 수준의 연구소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일반 종합대는 유니베시테트(Universitet)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년제 특수 대학은 호그스쿨라(Högskola)로 호칭된다.

스웨덴은 1959년부터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그룬드스쿨라(Grundskola)는 7세에 입학해서 16세에 졸업하는 것이 보통이다. 3학년년부터 제1외국어인 영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7학년부턴 독어 또는 불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9년제의 기본 교육이 끝나면 과거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3년제의 짐나시움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2년제 전문학교인 팩크스쿨라(Fackskola) 또는 직업학교인 일케스쿨라(Yrkeskola)에 진학했었다. 그리고 짐나시움 학생은 졸업 시험(student examen)에 합격해야만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8년 교육개혁에 의해서 앞에 열거한 세 가지 학교가 단일한 명칭의 3년제 짐나시움으로 통합되고 졸업 시험도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의 문호도 크게 넓어졌다.

우리나라처럼 스웨덴에 있어서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실력을 갖추어야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무시험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그리고 공과대학내의 몇 개 학과는 입학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해야만 입학이 된다. 비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학과는 요건을 갖춘 지원생을 모두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입학생의 수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대학 입학은 짐나시움 3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짐나시움을 이수한 사람도 같은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예외적으로 한 직장에 최소한 5년간 근무하

고 25세 미만인 사람은 조건부로 대학 입학의 길을 터주고 있다. 이 경우 적어도 짐나시움 2년 수료 정도의 영어 독파력이 있어야 하고 이수하려는 학과에 대한 예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관계 노동조합과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무료로서 교육(Vuxenutbildning)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철저한 학점제이다. 270일을 1년간의 학년력으로 계산하여 가을 학기(9월 1일~1월 9일)와 봄 학기(1월 20일~6월 3일)로 구분해서 강의와 세미나로 수업을 이끌어 간다.

학점제이기 때문에 의과대학(6년제)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학업 기간을 단축하여 빨리 졸업할 수도 있고 늦게 졸업할 수도 있다. 대학교의 학생증은 10년 기간으로 발급되며 매학기 자치 활동비를 납부해야만 유효하다.

대학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졸업 논문에 합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4년의 기간(8학기)이 필요하지만, 자연계의 학생들은 3년이나 3년 반에 걸쳐서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많다.

전공필수 과목은 60 학점이며 나머지 60 학점은 어느 과목이나 자유로 선택해서 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점을 취득해도 같은 대학에서 취득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동일 계열내 학과간의 전과는 자유로우나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대학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거창한 입학식과 졸업식이 없으며, 1년에 2회에 걸쳐서 봄·가을 학기말에 그 학기에 졸업한 사람들의 명단을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칸디다트(Kandidat)란 학위가 주어진다.

대학원 과정은 철저한 세미나제이다. 엘리트 주의적인 보수성이 아직도 지배적이며, 노벨상을 주는 나라의 권위로 증만해 있다. 1975년 교육개혁이 단행되기 이전에는 대학을 졸업한 칸디다트가 열심히 4년간 연구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리센시아트(Licentiat) 학위가 있었고, 이

학위 이후 연한에 관계 없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여하는 박사학위(Doktorsgrad)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수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는 리센시아트 학위 제도를 없애고 대학 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만을 엄선해서 박사과정의 대학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에게는 먼저 석사학위를 획득하게 하고, 논문의 등급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박사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풀제로 운영된다.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공별로 12 과목(Kurs)의 세미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12개의 세미나 페이퍼(Uppsats)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과목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논평을 받은 다음 수정·보완해서 그 과목의 지도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지도 교수가 판정해서 개별적으로 통고한다. 등록 학기부터 3년 이내에 전 과목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탈락된다. 외국인 학생으로서 스웨덴에서 석사학위를 획득한 사람은 네 과목을 면제하여 준다.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전 과목에 걸친 종합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늦어도 3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논문 심사는 3단계에 걸쳐서 행해진다. 첫 단계는 지도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과의 교수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합격된 논문은 2단계로 지도 교수와 타대학의 같은 과 교수 4명으로 구성된 5인 위원회에서 합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장은 반드시 타대학의 교수여야 한다. 2단계에서 합격한 논문은 마지막으로 필자가 공개 강단에서 지정된 1명의 교수가 논박하는 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이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이 절차를 가리켜 다스푸타손(Disputation)이라고 한다. 박사 논문의 출간비는 대학 당국이 전액(국비) 부담한다.

박사학위 논문에 통과된 사람은 그 해 연말에 스톡홀름 시청의 대연회장에 모여 성대한 학위 수여식을 갖는다. 학위 수여식에는 국왕이 임석

하고 학위를 받는 사람에게는 같은 대학의 원로 교수가 머리에 월계관을 씌여 준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야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다. 한 과에 정교수(professor)는 한 사람 뿐이며, 예외적으로 큰 과의 경우 두 사람을 두고 있다. 정교수는 종신제이며 국왕이 임명한다. 박사학위 논문에 우수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 도센트(Docent)에 임명된다. 한 과에 1명의 정교수가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정교수 자리가 결원이 생길 때에는 도센트 중에서 충원한다. 정교수로의 승진은 업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 사람의 정교수가 지원한 도센트의 업적(저서, 역서, 논문)을 철저히 심사해서 그 결과를 순위로 매겨서 문교성(Utbildnings department)에 보고하고, 각의를 거쳐서 국왕이 임명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경직성 때문에 정교수가 되지 못하고 정년 퇴직(65세)하는 도센트가 대부분이다. 도센트 중에는 강의 없이 연구만을 전담하는 사람(forskar docent)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특정 대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명한 교수가 있는 학과를 중요시 한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학과의 어느 교수 지도하에 배우고 학위를 받은 사실을 우선적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생의 수가 학과의 전통과 교수의 명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다.

스웨덴의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민주적 자율성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교수는 공·사적으로 어떤 견해를 발표해도 외부로부터 전혀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저서와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범죄 행위로 인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파면된다.

각 학과는 학과장(prefekt)—통상 그 과의 정교수—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과의 정책, 교과과정, 학위 승인 등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센트, 전임강사, 조교, 그리고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Institutions Kollegium)가 학과장을 자문한다.

단과대학(Fakultet) 수준에서는 학장(Dekanus)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의 학과장과 학생 대표로 구성된 교육위원회(Utbildningsnämnd)를 두고 학업 계획, 교과서, 전과 등의 문제를 민주

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대학교(Universitet)의 최고 정책 기구는 이사회(Konsistorium)이다. 이사회는 총장(Rektor)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Prorektor), 단과대학의 학장(Dekanus), 그리고 총학생회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학교 전반에 걸친 장·단기 계획과 정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총장과 부총장은 교수가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리고 학장은 교수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대학생들의 정치적 활동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매년 봄 학기초에 실시되는 총학생장 선거에서는 각 정당 소속의 대학생들이 정당별로 후보자를 내세우고 마치 일반 사회의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견을 발표하고 운동을 전개한다. 또 학생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발간되는 대학 신문도 대학 당국은 물론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이 기고한 글은 지면이 허락하는 한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실어주고 있다.

3. 스톡홀름大學校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로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나라 최대 도시로서 인구 규모는 1백 50만 명 정도이다. 13세기 중엽 빌엘 알(Birger Jarl) 장군이 수도로 정했었다. 스웨덴에서 제일 큰 호수인 멜라렌(Mälaren)과 발틱해가 연결한 천연 요소에 자리하고 있다. 스톡홀름은 어원적으로는 뚝(Stock)과 섬(Holm)의 복합어로서 ‘섬들을 뚝으로 연결’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흔히 ‘북구의 베니스’ 또는 ‘수상 도시’라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유럽의 어느 수도보다 깨끗하고 시민의 편익 위주로 계획되고 조화가 잘 된 현대 도시이다.

스톡홀름대학교(Stockholms Universitet)는 진리의 추구(Sanningssökandet)를 기치로 내걸고 1878년에 발족한 대학이다. 국교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스톡홀름시의 지원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발족했었다. 수도이면서도 최초의 대학(Uppsala 대학, 1447년)이 설립된 지 400여년 동안 대학이 없음을 부끄

럽게 생각한 스톡홀름 시민들과 지성인들이 “수도를 고급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발기 취지문을 내걸고, 1869년 10월 20일 스톡홀름대학 설립추진위원회(Högskole-föreningen; Stockholm)를 결성한 것이 대학 발족의 모체가 되었다.

대학의 모델을 파리의 Collège de France로 하느냐, 영국형의 Royal Institution of Great Britain으로 하느냐로 추진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으나, 국교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전제하에 국내 기존 대학의 유형을 답습했었다. 그러나 스톡홀름 시내에는 이미 대학 구실을 하는 대규모 기존의 연구소가 많았었고, 교수 충원에도 어려움이 있어 발족에는 진통이 따랐었다.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칼로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 1819), 공업연구소(Teknologiska Institutet, 1827), 임업연구소(Skogs Institutet, 1828) 그리고 약학연구소(Formaceutiska Institutet, 1837) 등이 이 방면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발족의 첫 학기에 수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을 설강하였고 등록한 학생은 460명이었다고 한다.

설립시부터 1904년까지는 초창기의 진통기였다. 왕립(국립)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학위 수여권을 부여 받지 못했었다. 따라서 스톡홀름 출신의 많은 젊은이들이 학위 수여권이 있는 타지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크게 고통을 받았었다. 1904년 학위 수여권이 부여되면서부터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09년 대학 건물을 신축하는 해에 처음으로 3명의 박사를 배출했었다.

1930년에는 전국 대학생 5,366명 중 스톡홀름 대학생이 1,200명으로 2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었다. 1939년 봄 학기에는 학생 수가 1,987명에 이르렀고, 이 중 701명(35.3%)이 타지역에서 스톡홀름대학으로 공부하러 온 학생이었다.

1940년대부터 국가 지원이 크게 늘면서부터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었다. 1950년에는 2,680명, 1960년에는 7,569명으로 학생 수

가 늘어났으며, 이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5%, 39%였다.

1960년 6월 1일자로 왕립대학으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인문과학대학(Humanistiska Fakultet), 법과대학(Juridiska Fakultet), 사회과학대학(Samhällsvetenskapliga Fakultet), 수학·자연과학대학(Matematisk-Naturvetenskapliga Fakultet), 신학대학(Teologiska Fakultet), 기자대학(Journalist Fögskola), 사회사업대학(Social Fögskola) 등 7개의 대학에 76개 학과가 있다. 1977~'78년에 등록한 학부 학생 수는 3만 1천 명이였다. 시설과 규모에 있어 스웨덴의 최대 규모 대학으로 발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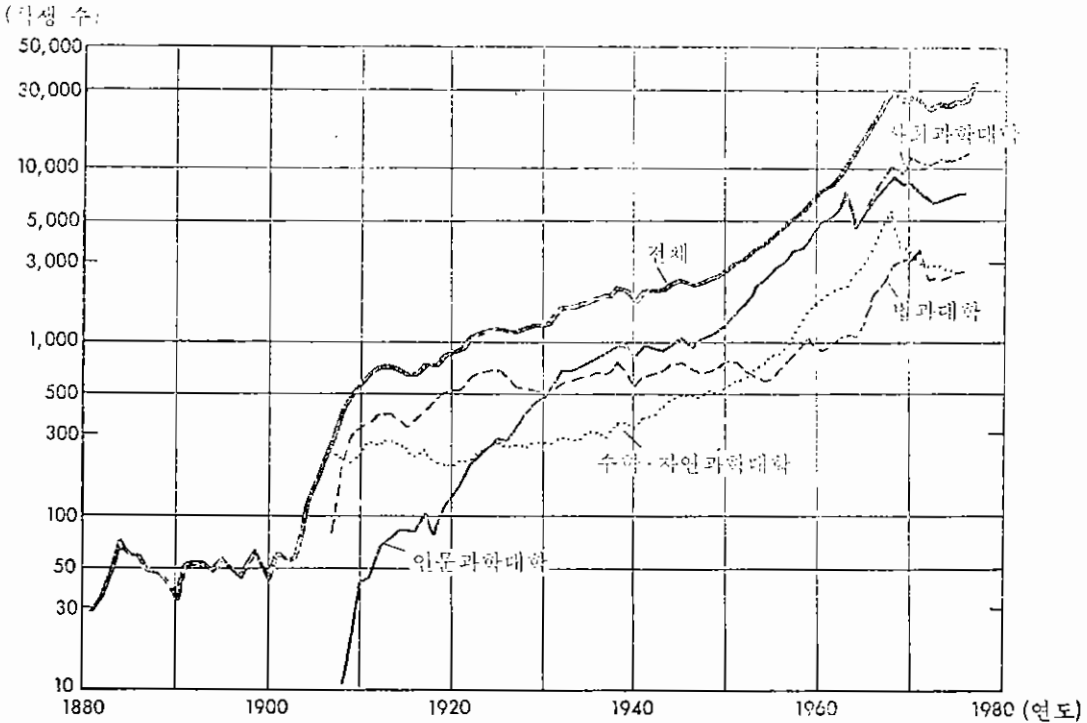
큰 학과의 하나인 사회과학을 예로 들면 1950년에 정교수 1명, 도슨트 1명, 전임강사 1명, 조교 및 사무원 3명으로 총 6명의 직원과 학생 수는 50명 정도였던 것이 1976~'77년에는 정교수 2명, 도슨트 9명, 선임연구원(연구 담당) 2명, 전임강사 14명, 조교 16명, 행정사무원 2명, 비서 3명으로 총 48명의 직원으로 확충되었고, 학생 수도 학부생 9백 명, 대학원생 30명으로 크게 확충되었다.

연도별 학부 학생 수를 살펴 보면, 1966년 1만 8천 명, 1967년 2만 3천 명, 1968년 2만 7천 명, 1977~'78년에는 3만 1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04년 학위 수여권이 부여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가 일로에 있는 학생들을 기존 시설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스톡홀름시 서북부 지대(Frescati 지대)에 5년에 걸쳐 대규모 대학 도시를 건설하여 1977년 9월 24일에 시내에 분산되어 있던 대학들을 한 캠퍼스 안으로 통합했었다. 오늘날 스톡홀름대학교 캠퍼스는 기숙사와 각종 편의 시설을 구비한 스웨덴 최대 규모의 대학 도시로 기능하고 있다.

대학교육 역시 기초 교육에서 연구 중심의 대학원교육에 치중하고 있다(Forskar Utbildning). 학부의 양적 팽창이 질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구조·기능적으로 다원화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스웨덴 사회의 전문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표 1〉 스톡홀름대학교 학생 증가 추세(1880~1978)



1977~'78년 학기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은 3천 명이었다. 그 이후 대학원생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1950년대에 연 평균 73명의 박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한데 비해 1970년대에는 100명 전후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했었다.

스톡홀름대학교 100년사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것은 이 학교의 경제학과(Stockholm School of Economics)와 4명의 노벨상 수상자이다. 1930년대 빅셀(K. Wicksell), 카셀(G. Cassel) 교수들 중심으로 시작된 경제학의 이론들은 린달(E. Lindahl), 오리인(B. Ohlin), 필달

(G. Myrdal), 스벤닐손(I. Svernilson) 교수로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 받는 경제학파를 이룩했으며, 1974년도에 필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었다.

필달 교수 외에는 1903년 알헤니우스(S. Arrhenius), 1944년 드 헤베시(G. De Hevesy) 교수가 각각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고, 1970년에는 알프벤(H. Alfvén)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었다. 이 대학 교수로서 첫번째 노벨상 수상자인 알헤니우스 교수의 공적을 추념하기 위해서 자연과학대학의 실험실 건물을 알헤니우스기념관으로 부르고 있다. *